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2024.05.03()

속보

3

□ :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3 지부교섭_ 질의응답 ① :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은 노조와 회사의 사회적 책임



대해 질의응답

5 2일(목) 대한이연에서 열린 3차 지부교섭에서는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통일요구안 2가지에 대해 8개의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안에 대해서만 7개의 질문을 하는 등 요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예고했다. 풍성한 질의응답이 좋은 교섭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

올해 금속노조의 통일요구안 중 하나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를 신설하고 그 직무에 채용을 늘리자는 것이다.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전환 등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앞으로 회사의 존립을 결정할 문제가 될 것이다. 노사가 공동으로 절실하게 논의하고 대응해야 한다.

경영상황 핑계는 그만 합시다!

회사측 질의응답은 대부분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요구안대로 하자는 것이냐?”로 요약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무작정 일자리를 늘리라는 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직무를 발굴하자는 것으로 오히려 회사의 생존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경영상황 핑계는 그만하고, 노조와 성실히 대화해야 할 때다.

3 교섭 속기록

고용불안, 노조탄압 묵과할 수 없다

: 교섭위원들이 오늘 리택에 다녀왔다. 지부교섭 참가사업장 중에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흔들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부는 노사 화합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자부한다. 노조 탄압은 지부교섭위원 전체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준비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

사 : 2024년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의 연속이다. 대전충북지역은 그동안 신의 원칙으로 노사간 원만히 해결해온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교섭도 노사상생 원칙아래 원활하게 교섭 진행되면 좋겠다.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질의응답

Q1. 회사가 위태해도 신규채용 요구하는건지?

: 무작정 늘리라는 식의 요구는 아니다. 회사가 진짜 위태로울 정도 상황이라면 조합도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사안이다.

Q2. 자연감소 인원은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구조조정 퇴직 등 모두 아우르는 것인지?

: 자연적인 퇴사, 자진퇴사 등은 모두 일자리를 메워야 한다. 정년이나 자진퇴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

Q3. 탄소배출 저감 직무를 기존 직원이 겸직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

: 기존 직원이 겸직한다면 그 직원의 노동강도가 강해진다.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본다. 탄소배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담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4.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전환 직무가 신설되는게 맞다고 판단되더라도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전환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필수적이다. 기업이 어렵다고 다 말하는데 말로만 어렵다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어려운지 노조에 자료 제공하고 논의 요청하면 그 논의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다.

Q5. 중소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이 버거운 상황이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관련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 직무가 얼마나 필요한지 노사가 합동 조사하고 파악한 뒤에 어느 정도 가능하자는 것이다.

Q6. 나이 제한 없이 하더라도 채용이 어렵다. 29세 이하 청년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제기한 요구이다. 만약 현실적으로 29세 이하 채용이 진짜 어렵다면 논의할 수 있다.

Q7.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대정부 공동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 노사 공동요구는 다양한 방식 고려 중이다. 회사가 정부를 직접 상대할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된다.

Q8. 연간 신규채용시 만29세 이하 청년 50% 이상 채용하는데 1명 채용한다면 어떻게 되나?

: 딱 1명이면 노사 협의로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청년 채용 비율을 50%는 유지해야한다.

차기교섭 : 5/9(목) 14:30 한국JCC